

[사회]

“장애 뚫고 취업 벽 허물겠다”

■ 조선투대 '장애 학생 취업 캠프' 가보니

“미술상담센터 세워 장애 치료 도움 것” 등 면접 실습 적극적 답변으로 두려움 없애

“이번 취업 캠프를 통해 ‘나만의 색깔을 알리는 면접 전략’을 확실히 세울 겁니다. 새해에는 전공을 살려 꿈을 꼭 이룰 거예요.”

구급 26일 오후 보성 다비치콘도 2층 일룸홀. 조선투대학교가 마련한 ‘장애 학생 취업 캠프’에 참가한 장애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날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개별 면접. 시각 장애 학생들은 시선만 면접관을 향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통역사의 손과 면접관의 눈과 입에 초점을 맞췄다. 지적·뇌병변 장애 학생들도 불편한 몸을 곧추세우고 양손을 무릎에 다소 갖아 올려 놓았다.

3명의 면접관 앞에서 진행된 면접 실습은 여느 대기업 면접 못지않게 진지했다. 예상치 않았던 돌

발 질문도 터졌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조선투대 미술학부 2년 김모(여·22)씨는 ‘10억 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미술심리상담센터를 마련해 저 같은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해 면접관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 순발력을 보였다.

조선투대 특수교육학과 4년 최모(24·뇌병변 장애 3급)씨는 ‘주변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은 저를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항상 말한다”라고 답했다.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 서진영 강사가 진행한 ‘나만의 색깔을 알리는 면접 전략’이란 주제의 강의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

됐다. 자신만의 취업 전략을 쏟아내는 서 강사의 얘기를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나갔다.

서 강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 스스로 전략을 세운 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학교 2년 박모(여·21)씨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장애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웬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취득해 졸업 후 꼭 취업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선투대 기홍성 학생복지팀장은 “장애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업 캠프에 참여한 장애 학생은 10명. 시각장애인 5명·청각장애인 2명·지체 장애인 2명·뇌병변 장애 학생 1명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이사 전환 속 조선투대 ‘1·8 학생’ 20주년 학내 민주화 계승 행사 풍성

조선투대 학내 민주화운동의 획을 그었던 ‘1·8학생’이 20주년을 맞았다. 조선투대는 1·8학생 2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전야제, 결의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올해는 특히 20년 관선이사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법인 정상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더욱 뜻깊다.

조선투대는 8일 오전 서석재 대강당에서 ‘1·8학생 2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은 1·8학생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1·8학생 경과보고, 조선투대 민주열사 6인 부도 건강검진권증정, 1·8학생 슬라이드 상영 및 관련 사진 전시, 노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한 범조선인 결의대회가 열려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 활동 경과 보고에 이어,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 오후에는 1·8학생 전야제를 갖는다.

조선투대는 지난해 1·8학생 19주기

▲1·8학생=6·29선언으로 전국에 민주화의 기운이 퍼지던 1987년 9월 4일, 조선투대에서는 학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박철웅 당시 총장 및 이사진의 독재적 학교 운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원 민주화투쟁 선포식’을 열었으며, 이것이 113일간의 장기농성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농성은 1988년 1월 8일 공권력 투입으로 막을 내렸으나 이후 구 이사진 해임과 관선이사 선임으로 이어졌다.

를 맞아 1월 8일을 학교 공식 기념일로 제정 선포하고 1·8학생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출근길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1월 7일
(음 11월 29일)
◇ 전국날씨

광주	맑음	1~9℃
주요 수도	맑음	2~10℃
대구	맑음	-3~9℃
부산	맑음	2~10℃
서울	맑음	-3~9℃
대전	맑음	-2~10℃
인천	맑음	-3~9℃
전주	맑음	-2~10℃
충청도	맑음	-3~9℃
경상도	맑음	-2~10℃
제주도	맑음	-1~10℃
남해안	맑음	-1~10℃
남해안	맑음	-3~9℃
남해안	맑음	0~9℃
남해안	맑음	-3~9℃
남해안	맑음	7~1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0:47 썰물 < 06:23
목포 밀물 < 13:52 썰물 < 19:22
여수 밀물 < 00:00 썰물 < 06:00

▲해돋이 07:41 ▲해지기 17:35 ▲달돋음 06:48 ▲달지기 16:13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최저/최고	-1/5	0/6	-1/7	0/5	-1/6	-3/2

낮 최고 13도 ‘따뜻한 小寒’

6일은 1년중 가장 추다는 ‘소한(小寒)’이었던 이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9.9도였으며, 장흥 13.0도, 완도 12.4도, 해남 12.2도, 여수 11.8도, 목포 11.3도 등 전남지역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또 이날 오후엔 공기 중의 물방울이 나 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가 뿌옇게 보이는 연무(煙霧) 현상이 일어났다. 한편 이번 주엔 광주·전남지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8~0도, 최고기온 3~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11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1~3mm 가량 눈이나 비가 오겠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편입학 모집 시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편입학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전남대는 7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광주캠퍼스의 경우 일반편입 247명, 학사편입 193명 등 440명, 여수캠퍼스는 일반편입 134명, 학사편입 52명 등 186명으로 총 626명을 모집한다.

일반편입에서는 국악과와 미술학과(한국화·서양화·조소·공예전공)가 필기 20%, 면접 20%, 실기 50%, 전적대학 성적 10%를 적용하고, 나머지 학과는 필기 40%, 면접 40%, 전적대학 성적 20%를 반영한다.

에비모임과 필기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예체능계열) 등은 29일, 합격자발표는 2월 12일 실시된다.

조선대는 8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 규모는 일반편입 455명, 학사편입 247명(3학년 입학정원 4천955명의 5%) 이내, 간호학과(주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 5명, 군위탁 편입 약간명 등 700여명이다.

버스·택시 운전자 울부터 적성검사 강화

울해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의 항목과 방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운전정밀검사는 2000년 4월에 도입한 뒤 무려 7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통해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새로 강화된 운전정밀검사는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범위를 검사하는 주의력 검사, 운전 중 변화사항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변화탐지 검사 등이 추가됐다. 또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필기검사에서 컴퓨터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필뉴스

도난 수표 유통 ‘주의’... 철저 확인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 수표가 무더기로 도난당한 후 일부 정액권 도난 수표가 유통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보가 발령됐다. 도난 수표는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비자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일 “도난 수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인지, 소비자로서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은행이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민사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초 서울 신한은행 사당동지점과 서울 서초구 국민은행에서 잇따라 수표 대량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달이 다되 가도록 범인의 윤락도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정수표는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10만원·50만원·100만원 수표 200여장,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50만원권·100만원권 80여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서 도난된 수표 중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비(非)정액권도 있어 고액수표로 위조 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구급 26일 열린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장애 학생 취업 캠프에 참여한 조선투대학교 학생들. 면접 실습에 앞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정림기자 jwi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1,622명으로 줄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줄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시된 ‘2008~2009년 지방공무원 표준정

원’에 따라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천711명에서 1천622명으로 89명(5.2%) 줄었다고 6일 밝혔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교육감 1명과 별정직 8명, 일반직 909명(3급 3명, 4급 15명, 5급 75명, 6급 277명, 7급 258명, 8급 281명), 기능직 704명(6급 21명, 7급 55명, 8급 104명, 9급 225명, 10급 299명) 등이다.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3급(부이사관) 정원이 1명 줄었으며,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식품위생직 정원 121명 중 111명을 감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금

농어촌 및 도시 가정을 심야전기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100만원 특별보급금 적용
※도시 지역은 200만원 특별보급금 적용

부족도 비번 사용으로 난방을 싸십시오.

한국전력공사 시업식재품

문의: 010-9469-9373 / (062)673-4981

최은제 씨 결혼상담

한국전력공사 시업식재품

최은제 씨 결혼상담

한국전력공사 시업식재품

Dynasty-Club

지사장 결혼상담모임

문의: 062/451-3545, 3547 / 010-6150-3340